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내달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에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수령
8월31일까지 써야...미사용 지원금 소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27일~5월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총 소요 예산 6조 1,000억원(국비 4조 8,000억원·지방비 1조 3,000억원)

목적	1차 우선지급		*2차 지급
	기초수급자 (289만 명)	차상위·한부모 (56만 명)	
인원	289만 명	56만 명	3,256만 명
규모	1인당 10~60만원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60만원	50만원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원

※1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

※2 균형발전·내후도평가 하위 40개 시군

*한부모 등을 통해 대상 확정 후 지급

신청·지급 방식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신청·지급 4월 27일(월)~5월 8일(금)
2차 신청·지급 5월 18일(월)~7월 3일(금)

70%의 국민 | 2차 신청·지급 5월 18일(월)~7월 3일(금)

신청 방식 온라인(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ARS)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및 방문 접수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신청 및 주요일제 운영

1차	4월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5월 1일(금)
1차	1,6	2,7	3,8	4,9,5,0	요일제휴게
2차	5월 18일(월)	19일(화)	20일(수)	21일(목)	22일(금)
	1,6	2,7	3,8	4,9	5,0

피해지원금 사용 방법

1차·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8월 31일 이후 소멸)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말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연말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연말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연말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연말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 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업,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연합뉴스

광주시, 축제·행사장 다회용기 공급 늘린다

올해 44만개 지원 위생관리 강화

지난해 온실가스 20t 감축 성과

광주시는 12일 “축제와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축제·행사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김치축제 등 지역 축제

와 행사장 6곳에 다회용기 41만여개를 지원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약 2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소나무 2천600그루가 1년 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는 지난 4일 ‘도시관문화마당’을 시작으로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해 총 44만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도 편리하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 각 부스에 식음료 종류별 맞춤형 용기를 미리 비치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췄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체계도 한층 정교해졌다.

행사장 현장에서 회수된 용기는 전문 세척업체로 이동해 ▲에벌 세척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건조 ▲살균소독 ▲정밀검사 ▲포장 등 7단계 공정을 거친다.

이는 일반 식당보다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해 다회용기 청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과 탄소중립 과제가 중요해지는 만큼 축제장에서의 경험이 일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축제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등 다양한 민간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전남도, 기초수급자 생계비 5만원 지급

전남도는 12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8만9천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44억5천만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가구주에게 이뤄진다. 다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등으로 계좌 지급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대상자를 확정해 사전 안내를 하고 5월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누락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전남형 청년마을’ 3곳 최대 3억 지원

24일까지 시·군 접수...실효성 등 평가

전남도는 12일 “청년 활동공간 조성과 향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남형 청년마을’ 3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참여를 바라는 청년단체·기업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단체(기업)에는 개소당 연 1억

원씩 3년간 총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지속성 부족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의 실효성,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창업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까지 13개 시·군에 17개 마을을 조성했다. 참가자 총 4천191명 중 68명이 지역에 유

입·정착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마을 종료 이후에도 마을이 지속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창업지원, 수익모델 발굴, 전문가 멘토링 등을 포함하며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한다. /김재정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